MRTC Statistical Brief No. 2025-06

국내 고등교육기관의 외국인 학생 유치 동향

: (전문)학사 중심으로 (2008~2024)

양윤주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박사과정생, **최서리** 이민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요약

한국 정부는 2027년까지 어학연수생 포함 외국인 유학생 30만 명 유치를 정책 목표로 삼고 있지만, 외국인 학생을 수용하고 있는 고등교육기관 현황에 대한 분석은 제한적이다. 국내 고등교육기관들은 내·외국인 비율, 국적별 비율 등에 있어서 외국인 유학생 수용 방식이 상이하다. 이번 통계브리프는 2008년부터 2024년까지 국내 고등교육기관의 내·외국인 학생 데이터를 분석하여 외국인 학생 수용기관의 변화 추이와 전체 학생 중 외국인 비율을 살펴본다. 또한 학제별 외국인 학생 출신국 다양성 정도를 분석하고, 특히 중국 학생 비중 감소와 베트남 학생 비중 증가 등 국적 편중 현상의 변화도 분석한다.

서론

지난 2025년 3월 세계대학 순위(THE World University Rankings)를 발표하는 Times Higher Education(THE)에서는 한국이 유학생 유치 관련 목표 달성이 임박하였지만, "질적 우려"가 있다는 글을 웹사이트에 실었다.[1] 구체적으로 2024년 한국 정부가 더 많은 대학들을 '인증'하면서 2027년까지 30만 명의 유학생 유치 목표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되었지만,[2] 일부 학계의 목소리를 실으면서 대학들의 관리 역량 문제를 지적하였다. 한 고등교육 연구자는 "일부 대학들은 심각한 학생 모집난을 겪으면서 자신들의 자원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유학생을 받아들이고 있다"고 지적하였고, 또 다른 교수는 "정부는 우수한 유학생 유치를 목표로 했으나, 실제로 한국의 대학들은 아무 유학생이나 모집"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물론 고등교육기관 내 외국인 확대는 여러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예를 들어, 전 세계의 대학들을 평가할 때 외국인 유학생(international student)이나 외국인 교직원이 많으면 '국제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3] 외국인 유학생 규모나 비중은 OECD의 글로벌인재유인지표(Global Talent Competitiveness

1) https://www.timeshighereducation.com/news/quality-worries-korea-edges-towards-international-student-goal
2) 이 글에 따르면 인증을 받은 대학에 입학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은 비자 발급이 쉬워지고, 해당 대학은 'Study Korea' 브랜드를 통한 마케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3) THE 평가영역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지만, 유학생 비율(international students)이나 외국인 교직원 비율(international staff)이 '국제화(international outlook)'의 평가항목 일부로 고려되고 있다. QS 세계대학 순위(QS World University Rankings)는 9개 지표로 평가를 진행하고 있는데, 2025년 기준으로 외국인 유학생 수(5%)와 외국인 교원 수(5%)가 주요 평가항목이다.

Index) 등 각국이 글로벌 인재들에게 얼마나 매력적인지를 살펴볼 때도 중요한 지표로 고려되고 있다. 외국인 유학생 확대가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최대화하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대학들의 유학생 수용 방식이나 환경에 대한 데이터 기반 논의가 필요하다. 이번 통계브리프는 고등교육(기관) 데이터를 활용하여 지난 십여 년 동안 외국인 학생의 확대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기존의 외국인 유학생 관련 통계가 외국인에 초점을 두어 생성되고, 논의되었다면, 이번 통계브리프에서는 외국인을 수용하고 있는 기관들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살펴보는데 초점을 두고자 한다.

통계분석 대상 및 내용

이 통계브리프는 국내 (전문)학사과정 고등교육기관 및 해당 과정에 재적 중인 외국인 학생[4]만을 분석대상으로 한다. 정교한 분석을 위해 모든 추이 및 특성을 전체 학제, 4년제 대학, 전문대학으로 나누어 살펴보았으며, 전체 학제는 각종대학(대학, 전문), 교육대학, 기능대학, 기술대학, 4년제 대학, 방송통신대학, 사내대학(대학, 전문), 사이버대학(대학, 전문), 산업대학, 원격대학(대학, 전문), 전공대학, 전문대학을 모두 포함한 경우를 말한다.[5] 이 통계브리프는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센터(KESS)에서 제공하는 「고등교육통계 학교별 주요 현황」, 「고등교육기관 외국인 유학생 현황」의 각 연도별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해당 데이터 내 모든 본·분교[6] 및 캠퍼스[7] 데이터를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고등교육통계 학교별 주요 현황」 자료 활용 시에는 본·분교 및 캠퍼스 데이터를 따로 분석하였는데, 이는 외국인 학생 유치 관련 본·분교 및 캠퍼스의 활용 방식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특정 캠퍼스에 외국인 학생 전용학과나 외국인 학생들이 선호하는 학과가 운영되거나, 외국인 학생을 위한 캠퍼스가 운영되는 등의 방식이다. 단, 연도에 따라 일부 학교의 본·분교 및 캠퍼스 정보가 구분되지 않거나, 통합·누락되어 제공된 경우가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모든 통계자료는 상반기(4월 1일) 기준 자료를 활용하였다.

국내 고등교육기관 현황 및 외국인 교육 현황 (2008~2024)[8]

먼저 전체 고등교육기관 중에서 외국인 학생을 수용하고 있는 기관 비중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외국인 학생 수용기관의 비중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선 고등교육기관 규모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 전체 학제를 기준으로 본·분교 및 캠퍼스 수는 2013년에 464개로 정점을 기록한 후,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그러나 2023년부터 다시 증가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일부 학교에서 분교나 캠퍼스를

4) 교육부 통계에서는 학업을 위해 입국한 유학생과 국내 체류 중에 학위과정에 등록한 외국인 학생을 구분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그러므로 교육부 데이터 분석 시에는 보다 포괄적 개념인 "외국인 학생"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5) 단, 2008년~2024년 데이터상 기능대학은 외국인 재적생이 부재하다.
6) 분교는 고등교육법 제24조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6조 명시된 법률적 용어로,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국내외에 분교(分校)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는 본교와 제도적으로 구별되는, 교육부가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독립적인 교육기관이다.
7) 캠퍼스는 법률적 용어는 아니고, 학부나 학과, 단과대학과 같은 학교 시설물 일부가 이전한 경우나 대학 통폐합으로 하나의 대학을 두 곳 이상의 장소에서 운영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https://chunchu.yonsei.ac.kr/news/articleView.html?idxno=22675, 최종검색일: 2025.6.2.)
8) 학교상태가 '폐교'이더라도, 해당년도에 재적학생이 1명이라도 있는 경우(폐교의 잔류 재적학생)에는 포함하였다.

신설한 영향도 있겠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데이터의 한계 또한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9] 본교(제1캠퍼스) 수만 따로 산출해 살펴보면, 국내 고등교육기관은 2013년에 434개로 정점을 기록한 후 2024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기관들의 외국인 유학생 수용 추이를 살펴보면, 전체 본·분교 및 캠퍼스의 70% 이상이 외국인 유학생을 수용하는 추세를 유지하다가 조금씩 감소해 2013년부터 60%대로 하락하는데, 이는 2012년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10] 도입으로 인증 미달 대학들의 유학생 모집이 억제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당시 13개교가 비자발급제한대학으로 선정되었다.[11] 하지만 이후 인증 기준을 충족한 대학이 늘어나면서 2016년부터 다시 70%대를 넘으며 회복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2024년에는 전체 본·분교 및 캠퍼스의 81.38%가 외국인 학생을 수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추세는 본교(제1캠퍼스)만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 중에서 4년제 대학을 기준으로 외국인 학생 수용기관 비중을 살펴보도록 한다. 전체 본·분교 및 캠퍼스 수는 2008년부터 꾸준히 증가하여 2014년에 221개로 정점을 기록한다.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데, 위의 전체 학제와 마찬가지로 4년제 대학 역시 2023년에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본교(제1캠퍼스) 수만 따로 살펴보면, 국내 고등교육기관은 2014년에 191개로 정점을 기록한 후 2017년부터 꾸준히 감소한다. 외국인 유학생 수용기관 비중의 경우,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의 영향으로 2013년부터 외국인 유학생 수용 비중이 다소 감소하여 80%대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2018년부터 다시 90%대를 회복한 후 최근 데이터상 본·분교 및 캠퍼스의 수가 증가하면서 그 비중이 다시 80%대로 떨어졌다. 본교(제1캠퍼스) 기준으로는 2024년에 전체 고등교육기관의 93.51%가 외국인 재적학생을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통해서 분교나 기타 캠퍼스보다는 본교(제1캠퍼스)에서 외국인 학생을 수용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전문대학을 기준으로 전체 본·분교 및 캠퍼스 수는 2008년에 160개로 정점을 기록한 후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다 2023년에 대폭 증가하였다. 본교(제1캠퍼스) 수만 따로 살펴보면, 국내 고등교육기관은 2008년부터 2024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외국인 유학생 수용기관 비중은 2015년부터 상대적으로 가파르게 증가하였으며, 2024년에는 전체 본·분교 및 캠퍼스의 84.62%가 외국인 재적학생을 수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8년에 비해 19%p 증가한 수치이며, 외국인 유학생 수용 기관이 가장 적었던 2011년에 비해 28.92%p 증가한 수치이다. 지난 2008~2024년의 기간 동안 외국인 학생 관련하여 변화가 큰 고등교육기관은 전문대학임을 극명하게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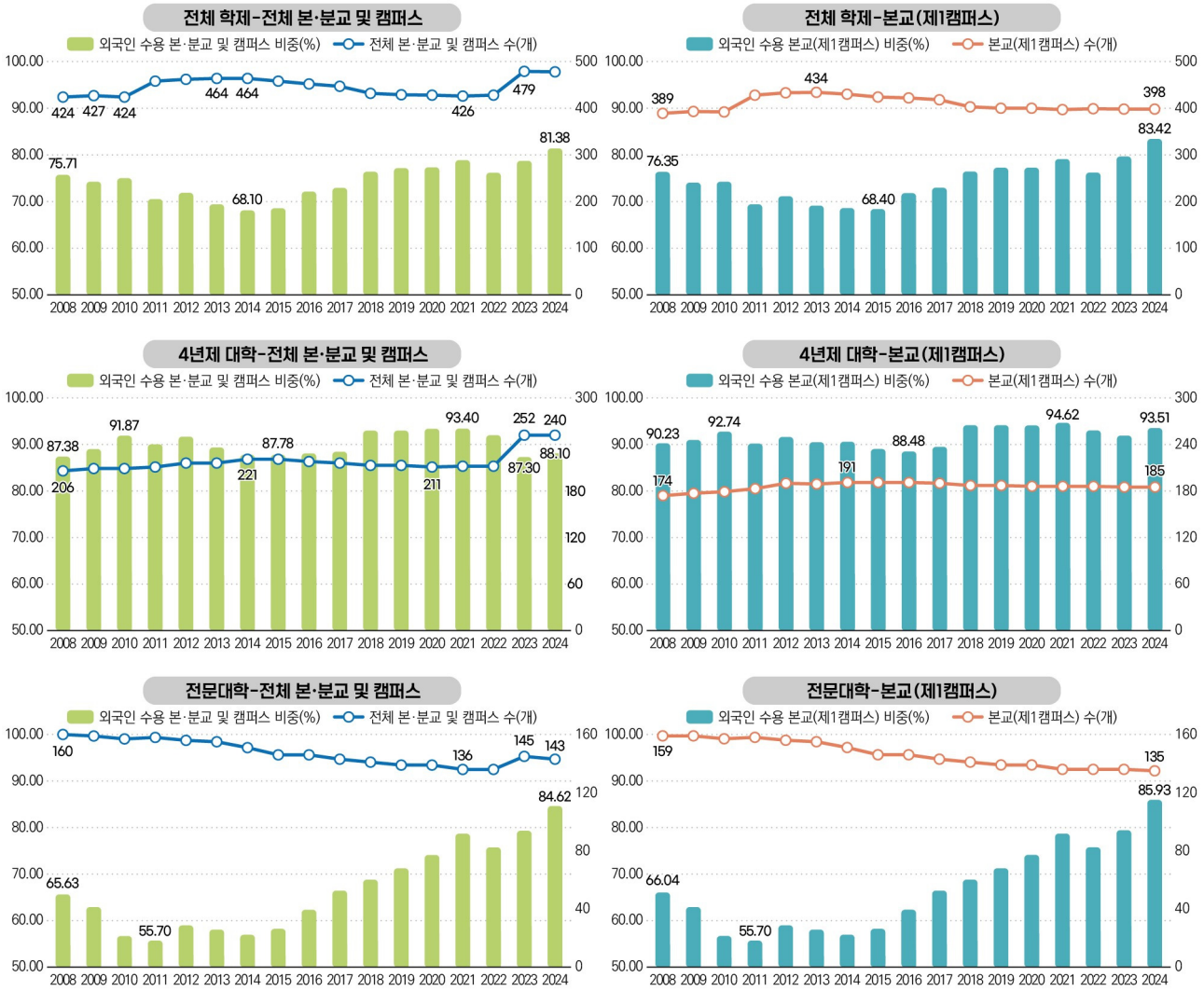
9) 일부 대학의 경우, 2010년부터 2022년까지 본·분교 및 캠퍼스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해 왔으며, 2023년부터 해당 정보를 구분하여 제공한 것으로 확인된다. 교육부의 「2024년 교육기본통계 주요 내용」에 따르면, 고등교육기관 수는 2024년까지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10) 구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인증제

11) https://if-blog.tistory.com/2377

〈그림 1〉 국내 고등교육기관 중 외국인 유학생 수용 기관 비중 (2008~2024)

(단위: %, 개)



자료: 한국교육개발원「고등교육통계 학교별 주요 현황」각 연도별

〈그림 2〉는 각 기관의 전체 재적학생 중 외국인 학생의 비율 분포를 2014년과 2024년을 기준으로 비교한 것이다. 먼저 전체 학제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14년에는 전체 본·분교 및 캠퍼스 중 외국인 유학생 비율이 5% 미만인 기관이 98.4%에 달해, 국내 고등교육기관에서 외국인 학생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았음을 보여준다. 반면 2024년에는 해당 비중이 78.4%로 줄어든 반면, 5% 이상인 본·분교 및 캠퍼스의 비중이 전반적으로 증가하였다. 특히 외국인 학생 비율이 5% 이상 10% 미만인 본·분교 및 캠퍼스는 2014년에 1.6%에서 2024년에 12.3%로 7배 이상 증가하였다. 외국인 학생 비율이 20% 이상인 곳도 3.1%나 된다는 점도 눈에 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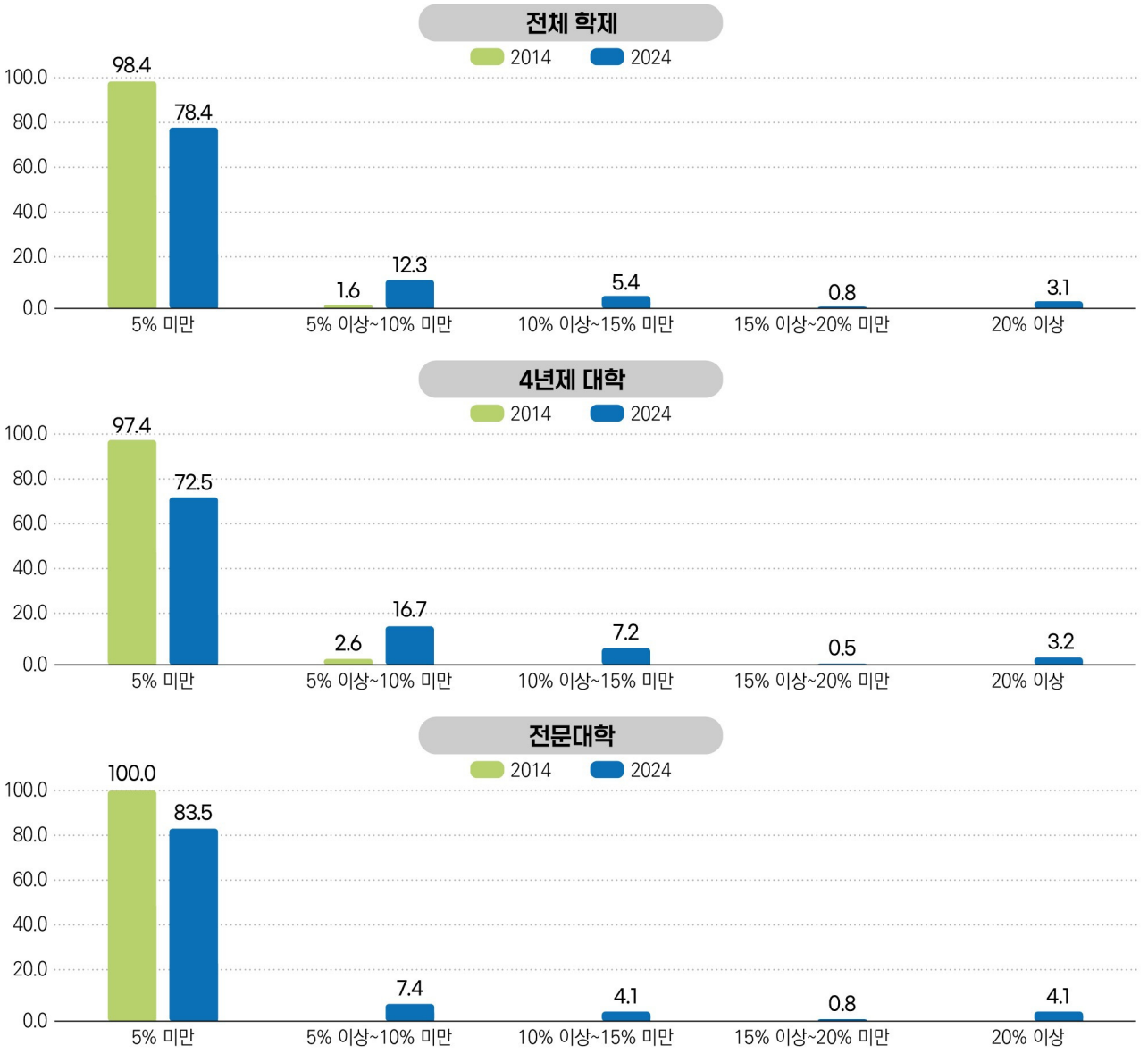
다음으로 4년제 대학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2014년에는 전체 본·분교 및 캠퍼스 중 외국인 학생 비율이 5% 미만인 기관이 97.4%였으며, 5% 이상 10% 미만인 기관이 2.6%에 불과했다. 2024년에는 외국인 학생 비중이 5% 이상인 기관이 전반적으로 증가했으며, 특히 5% 이상 10% 미만인 기관은 2014년에 비해 6배 이상 증가했다.

마지막으로 전문대학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전체학제와 4년제 대학과 마찬가지로 2014년에는 모든 본·분교 및 캠퍼스의 외국인 학생 비중이 5% 미만인 반면, 2024년에는 외국인 학생 비중이 5% 이상인 곳이 전반적으로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정리하자면, 2014년에는 전체 고등교육기관에서 외국인 학생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부분 10% 미만에 머물렀으며, 특히 전문대학의 경우 전 기관이 5% 미만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2024년에는 유학생 비율 분포가 보다 확대되었고, 전체 학제의 3.1%, 4년제 대학의 3.2%, 전문대학의 4.1%에서 외국인 학생이 전체 재학생의 20% 이상을 차지할 만큼 그 비중이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 이는 외국인 학생이 국내 고등교육기관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2〉 전체 재적학생 중 외국인 비율별 고등교육기관 현황 (2014년 vs 2024년)

(단위: %)



자료: 한국교육개발원「고등교육통계 학교별 주요 현황」각 연도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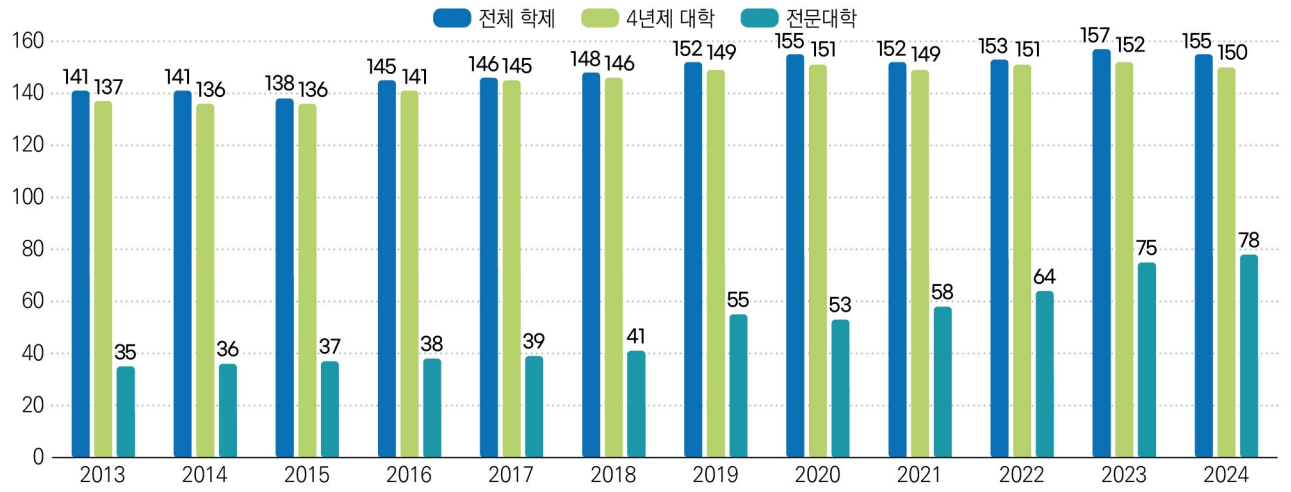
국내 고등교육기관의 외국인 학생 국적 다양성 (2013~2024)

〈그림 3〉은 2013년부터 2024년까지 국내 고등교육기관의 외국인 유학생 출신국 수를 전체 학제, 4년제 대학, 전문대학으로 나누어 제시한 것이다. 출신국 수는 단순한 외국인 학생 수와는 별개로 고등교육기관의 다양성 수준을 반영한다.

전체 학제 기준으로 보면, 외국인 유학생의 출신국 수는 2013년 141개국에서 시작해 2020년~2024년 사이 150개국을 넘어서며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2024년 기준으로는 155개국 출신의 유학생이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4년제 대학은 전반적으로 전체 학제와 유사한 흐름을 보이며, 2024년에는 150개국 출신 유학생을 수용하고 있다. 전문대학의 경우, 2013년에는 35개국 출신 유학생을 수용하고 있었으나, 이후 점진적인 증가세를 보여 2024년에는 78개국으로 두 배 이상 확대되었다. 특히 2019년부터 2024년 사이 매년 큰 폭으로 출신국 수가 증가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단순한 유학생 수의 확대를 넘어, 질적 국제화와 출신국 다양성 확보가 국내 대학의 주요 전략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3〉 국내 고등교육기관의 외국인 학생 출신국 수 (2013~2024)

(단위: 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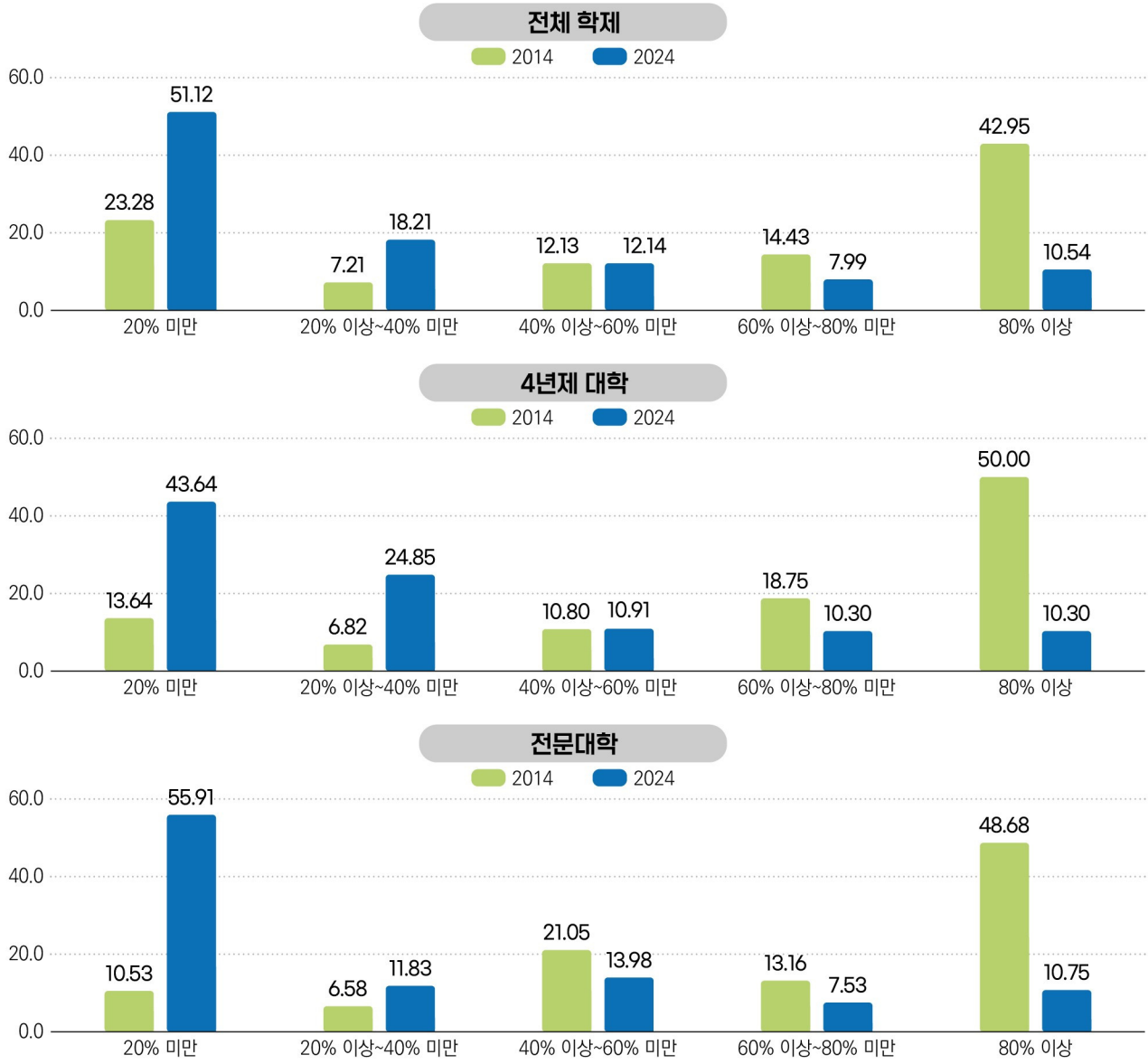


자료: 한국교육개발원「고등교육기관 외국인 유학생 현황」각 연도별

〈그림 4〉는 중국 학생 비중별 고등교육기관 분포를 보여준다. 중국 국적 학생은 오랜 기간 한국 고등교육기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 온 외국인 학생 집단이다. 그러나 최근 10년간 외국인 학생 출신국 구성비에는 중요한 변화가 나타났다. 전체 학제 기준으로 보면, 중국 학생 비율이 80% 이상인 고등교육기관의 비중은 2014년 42.95%에서 2024년 10.54%로 급감하였다. 반면, 중국 학생 비율이 20% 미만인 기관은 같은 기간 23.28%에서 51.12%로 증가하였다. 이는 특정 국가(중국)에 대한 외국인 학생 유치 의존도가 감소했음을 보여준다. 4년제 대학 기준으로도 유사한 경향이 나타났다. 중국 학생 비율이 80% 이상인 대학은 2014년 50.0%에서 2024년 10.3%로 감소하였으며, 20% 미만인 대학은 13.64%에서 43.64%로 확대되었다. 전문대학 역시 80% 이상 비율이 48.68%에서 10.75%로 크게 감소하였고, 20% 미만 비율은 10.53%에서 55.91%로 증가하였다.

〈그림 4〉 중국 학생 비중별 고등교육기관 분포 (2014년 vs 2024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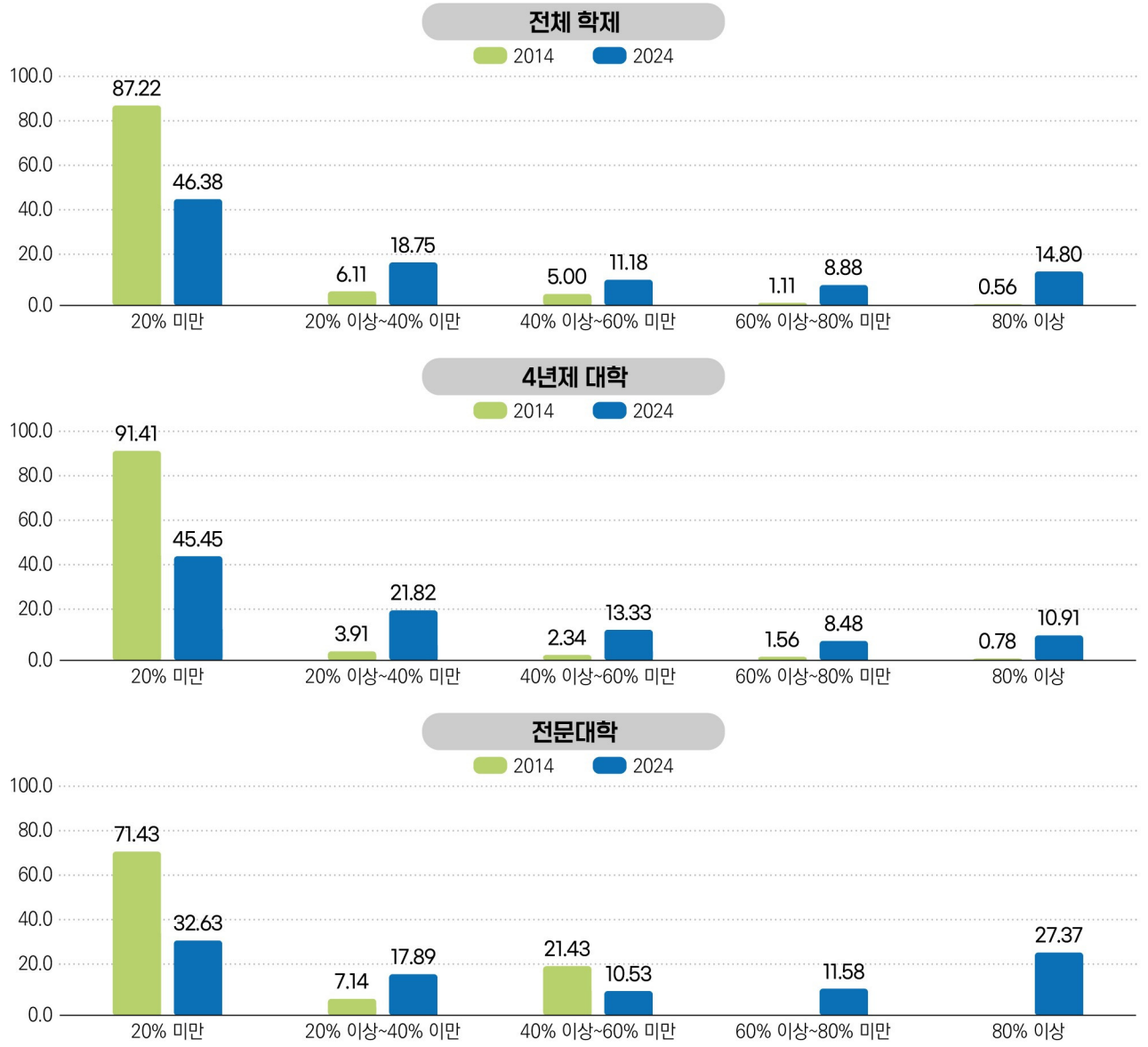


자료: 한국교육개발원「고등교육기관 외국인 유학생 현황」각 연도별

그러나 동시에 또 다른 형태의 국적 편중 현상도 새롭게 나타나고 있다. 베트남 학생은 최근 국내 고등교육기관에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주요 집단이다. 전체 학제 기준으로 보면, 베트남 학생 비율이 20% 이상인 고등교육기관의 비중은 2014년 6.11%에서 2024년 18.75%로 세 배 이상 증가하였다. 특히 40% 이상~60% 미만인 기관은 5.00%에서 11.18%, 80% 이상인 기관은 0.56%에서 14.80%로 급증하였다. 4년제 대학의 경우에도 유사한 추세가 나타난다. 20% 이상~40% 미만인 대학은 3.91%에서 21.82%로, 80% 이상인 대학은 0.78%에서 10.91%로 증가하였다. 전문대학에서는 더욱 급격한 변화를 보이는데, 80% 이상이 베트남 유학생인 전문대학 비율은 2014년 0%에서 2024년 27.37%로 폭증하였다. 이는 일부 전문대학에서 베트남 학생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이미 국내 언론에서도 일부 지방대학에서는 전체 외국인 학생의 80~90%가 베트남 국적임을 주목하여 보도한 적이 있었다.[12)]

〈그림 5〉 베트남 학생 비중별 고등교육기관 분포 (2014년 vs 2024년)

(단위: %)



자료: 한국교육개발원「고등교육기관 외국인 유학생 현황」각 연도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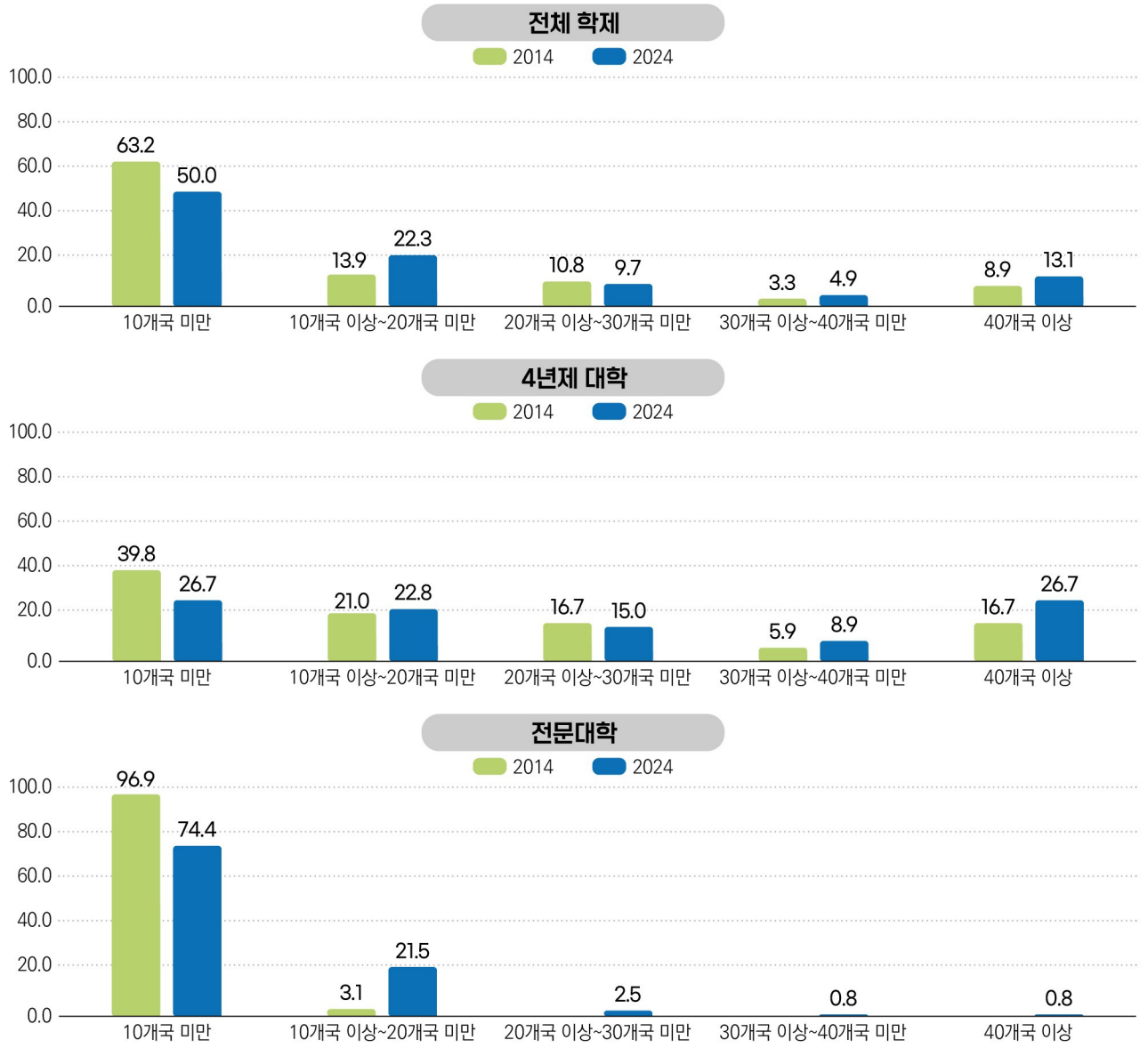
〈그림 6〉은 고등교육기관을 외국인 학생의 출신국 수 기준으로 분류하여, 2014년과 2024년의 분포 변화를 전체 학제, 4년제 대학, 전문대학으로 나누어 제시한 것이다. 전체 학제 기준으로 보면, 출신국이 10개국 미만인 기관의 비율은 2014년 63.2%에서 2024년 50.0%로 감소하였으며, 반대로 10개국 이상인 기관의 비율은 36.8%에서 50.0%로 증가하였다. 특히 40개국 이상에서 외국인 학생을 유치하는 기관의 비중은 같은 기간 8.9%에서 13.1%로 확대되어, 일정 수준 이상의 출신국 다양성을 유지하는 대학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4년제 대학은 전체 학제보다 더 뚜렷한 다양성 확산 경향을 보인다. 10개국 미만 기관은 39.8%에서 26.7%로 감소한 반면, 40개국 이상 기관은 16.7%에서 26.7%로 증가하였다. 전문대학의 경우에도 주목할

12) 조선일보. (2024.10.14.). "중국인 유학생 넘어섰다, 한국 대학 지탱하는 베트남 학생들" (https://www.chosun.com/economy/market_trend/2024/10/14/FPVHQAJRRZCC5BKD5MOP4QEEJE/)

만한 변화가 나타난다. 2014년에는 전문대학의 96.9%가 10개국 미만의 유학생을 유치하는 데 그쳤으나, 2024년에는 그 비율이 74.4%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앞서 〈그림 3〉에서 확인한 출신국 수 증가 추세와도 일맥상통한다. 다만 여전히 절반 이상의 고등교육기관이 10개국 미만의 유학생을 유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양성 확대의 편차가 존재한다.

〈그림 6〉 외국인 학생의 출신국 다양성에 따른 고등교육기관 분포 (2014년 vs 2024년)

(단위: %)



자료: 한국교육개발원「고등교육기관 외국인 유학생 현황」각 연도별

통계분석의 정책적 시사점

이번 통계브리프는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제공하는 고등교육기관 학생 데이터를 활용하여 국내 기관들이 외국인 학생을 어느 정도 수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수용하는 외국인의 국적별 다양성은 어느 정도인지를 분석하였다. 아래에서는 데이터 및 정책 관련 두 가지 시사점을 제시한다.

먼저 외국인 학생 데이터 수집 및 제공의 정확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통계브리프에서 분석에 활용된 자료 중 「고등교육통계 학교별 주요 현황」의 외국인 학생 관련 데이터는 일부 오류가 있는 상황이다. 「고등교육통계 학교별 주요 현황」에서 일부 연도, 일부 학교의 경우 본·분교 및 캠퍼스 외국인 학생 데이터가 생략되거나, 구분되지 않은 채 제공되고 있다. 예를 들어, 성균관대학교의 2008년, 2009년, 2023년, 2024년 데이터의 경우 캠퍼스가 구분되어 제시되는데 반해 2010~2022년 데이터는 서울 캠퍼스만 제공되고 있다. 물론 외국인 학생 관련 데이터는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발표하는 「고등교육기관 외국인 유학생 현황」을 참고하면 되기는 하지만, 이 자료에는 내국인 학생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이번 통계브리프에서 분석한 것처럼 전체 학생 중 외국인 학생의 비율 등을 파악하기 어렵다. 국내 고등교육기관의 본·분교 및 캠퍼스별 외국인 학생 수용 현황과 내·외국인 학생 비율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데이터의 정확도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외국인 학생의 양적 확대를 넘는 다양성 확보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번 통계브리프에서 분석한 시기(2008~2024) 동안 국내 고등교육기관들이 유치하는 외국인의 출신국은 점차 확대되어 왔고, 초창기의 중국 학생 편중 현상 역시 완화되었다. 그런데 점차 또 다른 편중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베트남 출신자가 전체 외국인 학생의 80% 이상인 고등교육기관이 14.8%나 되고, 특히 전문대학의 경우 베트남 학생의 비중이 80% 이상인 기관이 27.35%나 된다. 베트남은 고용허가제의 주요 송출국이기 때문에 전문대학 위주로 베트남 학생이 증가한다는 것은 단순히 유학생 정책뿐만 아니라, 이민정책 측면에서 주목할 만한 현상이다. 즉, 유학과 취업의 경로가 혼용되어 각각의 정책이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변화의 추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외국인 학생의 출신국이 10개 미만인 4년제 대학의 비중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여전히 높은 편이고(2014년 39.8%→2024년 26.7%),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지금도 대부분이 10개국 미만에서 외국인 학생을 받아들이고 있다. 특정 국가를 중심으로 학생을 유치하는 것이 짧은 기간 내 대규모의 학생을 확보하는 데 '실적 측면에서' 유리하겠지만, 실제 "국제화"나 글로벌 인재 "국제경쟁력" 지표에서 의도했던 목표는 아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외국인 학생의 '규모'뿐만 아니라 출신국 등 '다양성'의 관점에서도 학생 유치의 목표가 설정될 필요가 있고, 외국인 학생 유치 관련 다양성 지수(diversity index) 개발과 활용도 외국인 학생 수용기관 관리 차원에서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자료

교육부. (2024.08.31.). 2024년 교육기본통계 주요 내용.
교육부. (2024.09.04.).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 방안(Study Korea 300K Project) 1주기 점검 결과.
조선일보. (2024.10.14.). 중국인 유학생 넘어섰다, 한국 대학 지탱하는 베트남 학생들.
https://www.chosun.com/economy/market_trend/2024/10/14/FPVHQAJRRZCC5BKD5MOP4QEEJE/
중앙일보. (2024.09.05.). 올해 한국 온 유학생 20만명 첫 돌파…한양대 8264명 최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75596

통계정보

활용통계	①「고등교육통계 학교별 주요 현황」, ②「고등교육기관 외국인 유학생 현황」
작성기관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센터(https://kess.kedi.re.kr)
작성유형	보고통계
공표주기	①「고등교육통계 학교별 주요 현황」: 분기별, ②「고등교육기관 외국인 유학생 현황」: 1년

인용

양윤주, 최서리. (2025). 국내 고등교육기관의 외국인 학생 유치 동향: (전문)학사 중심으로 (2008~2024). 이민정책연구원 통계브리프, (2025-6). 이민정책연구원.

집필자 | 양윤주, 최서리 **발행인** | 우병렬 **문의** | 02-3788-8031 **발행처** | 이민정책연구원 **발행일** | 2025년 07월
주소 | 13824 경기도 과천시 과천대로2길 54 그라운드브이 6층 Tel. 02-3788-8000 Fax. 02-3788-8099 www.mrtc.re.kr

Migration Research & Training Centre
이민정책연구원
Partner Organization of IOM
MRTC

본 자료는 이민정책연구원 홈페이지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연구원의 허락없이 내용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복사하거나 전송하는 행위를 금합니다.
본 통계브리프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MRTC)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ISSN 2982-9852